쇠로 된 방

DOI: 10.3938/PhiT.25.032

이 형 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19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두 달 후면 만 55세가 되고, 20세기의 마지막 달부터 21세기가 13년이 지난 2012년까지 약 13년간 한국 서적을 미국에 유통하는 일을 해왔던 은퇴자다. 평범한 대한민국 문과출신 사람이었던 나는 10대 때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20대 때엔 인문사회과학을, 30대와 40대 때엔 컴퓨터 책과 일에 필요한 경영서적을 주로 읽었던, 독서 이력상 아무런 특징이 없었던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나이 50세를 맞게 된 2010년 즈음에 주술에라도 걸린 듯 ‘5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상한 암시에 사로잡혔었다. 그때 나는 내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그 동안 무엇인가 열중해서 거의 맹목에 가깝게 열정적으로 달려왔지만 잠시 멈추자 마치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이 엄습했다. 삶의 방향 전환, 그런 게 필요하다고 강렬하게 느꼈다.

그럴 즈음에 LA 지역의 한 방송국에서 매주 책 소개 코너에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대중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일은 매우 즐거웠고, 내가 하고 있던 일의 홍보효과도 있었다. 다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책을 소개해야 했기에 선택에 제약이 따랐고,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위주로 그 당시의 독자들 취향에 맞추는 방향을 취했다. 그 당시 베스트셀러라는 게 <아파야 청춘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멈추면 보이는 것들> 같은 책으로 그 이전 10년을 풍미했던 <시크릿>류의 자기계발서적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가짜’임이 드러나자, 오히려 그걸 계기로 경제위기에 직면해 상처받고 길거리로 내몰린 대중들에게 ‘힐링’이라는 이름의 특제 반창고를 팔아먹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모든 책이 맹탕은 아니어서 드문드문 나도 모르게

내게 영향을 준 좋은 책들이 있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범하는 인지적 착각 여섯 가지를 과학적으로 다룬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의 <보이지 않는 고릴라>나 불확실한 시기에 실패를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현실에 적응할 길을 찾으라는 팀 하포드의 <어댑트>, 필연과 법칙이 모든 것이며 우연은 그야말로 요행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내게, ‘우연이 필연의 상위의 법칙’임을 일깨워 주며 통제감의 착각에서 벗어날 것을 일깨워준 <지하철과 코코넛> 같은 책들이 있었다. 이런 책들은 힐링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우리가 다루는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려우며, 이 현실을 헤치고 나아갈 우리들은 또 얼마나 허약하고 속기 쉬운 존재들인가를 깨우쳐주는 좋은 책들이었다. 이런 책들이 내 굳어진 의식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가져왔으리라.

책 선정에 제약을 많이 느꼈던 차에 프로그램 개편으로 공중파 방송 출연이 끝나고 나는 이를 계기로 함께 방송하던 아나운서에게 팟캐스트 제작 및 공동진행을 제안하였다. 당시는 ‘나꼼수’의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팟캐스트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때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책소개 팟캐스트 <어쩌다 책 읽기>가 탄생되었다. 약 1년간 매주 쉬지 않고 50회 가까이 진행된 이 방송은 베스트셀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필수교양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다양하게 다루었는데, 그 중에는 공중파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교양 과학서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한 레이첼 카슨의 고전 <침묵의 봄>을 비롯해, 진화 의학을 다룬 샤론 모알렘의 <아파야 산다>, 운동과 뇌기능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 <운동화 신은 뇌>, 세계적인 영양류학자 프란스 드 발의 <내안의 유인원>, 뇌과학을 아주 쉽고 요령 있게 설명한 레오나르드 밀로디노프의 <새로운 무의식>, 종교의 본질을 진화적 측면에서 다룬 존 티한의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감정과 그로 인한 얼굴 표정을 과학적으로 다룬 폴 에크먼의 <얼굴의 심리학>, 이석영 교수의 <빅뱅 우주론 강의> 등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권에 가까운 책을 소개했다.

과학책의 소개 비중이 점차 늘어난 데는 다른 모든 이유를 넘어서 그 자체로 흥미있게 서술된 책이 많고, 저자의 주장이

저자약력

이형열은 서울대 인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97년 도미하여 Axiom사 International Marketing 담당자로 근무하다 1999년 미국 LA에서 Opes, Inc.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2012년 Opes, Inc. 대표이사에서 은퇴하였다. 현재 서평가이며, 과학커뮤니케이터로 활동 중이며 한국일보 <이형열의 과학책 읽기>를 연재 중이다.

확실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을 두고 명쾌하게 논리를 전개해나갔기 때문이었다. 과학책을 소개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나 자신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과학책을 수없이 사들이기 시작했고, 과학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과학자가 직접 나와서 진행하는 TED 강연이나 Youtube 시청, 심지어 iTunes University를 통한 대학 강의도 듣기 시작했다. 읽어야 할 책은 많았고, 사들인 책은 쌓여갔다. 그 이전까지 나는 이념과 도그마에 휩싸여 뻔한 주장을 동어반복하는 일부 사회과학 서적이거나, 애매모호하고 사변적이며 다소 주관적이기까지 한 인문학적 책들에 식상해 있었다. 그러던 내게 교양과학 서적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인간에 대한 의문을 조금씩 풀어주는 '인문' 서적 역할까지 해주었다.

교양 과학의 중심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진화를 이해하게 되자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겨우 수천 년, 기껏해야 1만여 년 전 문명과 함께 출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이미 수백만 년 전 영장류의 무리에서 갈라져 나와 그들과 상당히 많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제3의 침팬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나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 현상적으로 아닐지라도 최소한 '본질적으로는' 이성적인 존재일 거라는 19세기적 이성주의자의 시각으로 살아왔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 존재인데 왜 이 세상은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있는가 하는 것은 내게 커다란 미스터리였고 그 숙제를 풀지 못해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진화 과학은 이런 나의 인간관을 바꿔주었다. 여기에 더해 게리 마커스나 데이빗 린든 같은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임시변통 해결책으로 만들어진 클루지 즉 "비효율적이고 엉성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작동하는 장치"임을 일깨워주었다. 또 대니얼 커너먼 같은 인지과학자는 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인지적 편향에 대해서 깨우쳐 주었으며 데이빗 버스 같은 진화심리학자는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 이면에 깔려 있는 진화적 기제들의 작동 방식을 알게 해주었다. 심지어 닐 슈빈의 <내안의 물고기>나 리처드 도킨스의 <지상 최대의 쇼> 같은 책들은 영장류 이전의 생물 진화의 과정 속에 인간의 위치를 정확히 자리매김해 주었다. 다양한 교양과학서를 읽을수록 과학에 대한 애초의 내 선입견이 많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학은 학자나 전문가 혹은 매니아에게만 필요한 주로 자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현대 문명을 정조준하고 있는 객관적 태도와 실증적 탐구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사들이기 시작한 책들은 금세 수백 권에 이르렀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관리해야 할 정도가 되었으며 독서는 직장생활과 병행하기

버거운 정도가 되었다. 그 당시 사업에 변화를 주기 위해 새로운 일도 추진 중이었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기대하고 있던 큰 협상 하나가 결렬되는 바람에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Change or Die!

나는 변화를 간절히 원했고, 일을 계속하는 한 그 형태가 변할지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오긴 어렵다는 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은퇴를 고려하기에 이르렀고, 2012년 말 무모하게도 은퇴를 결행했다. 한편 팟캐스트를 계속해나가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한 소통도 늘려나갔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큰 힘이 되었고, 나의 관심은 인간에서 우주로, 거시세계에서 미시세계로 종횡무진 유행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둔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하고 설득력을 갖춘 교양과학 저서들과 그들이 책 뒤에 정리해놓은 레퍼런스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친구들 덕택이었다. 팟캐스트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새로운 공동진행자를 찾기 어려운데다, 그간의 포맷이 교양과학에만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50회를 목전에 두고 1년 만에 팟캐스트는 끝이 났다. 나는 대신 읽은 책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을 발췌해 페이스북에 포스팅하고 친구 수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갔다. 2014년 2월 <과학책 읽는 보통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책 읽기 그룹을 만들고 매달 좋은 교양과학도서를 지정해 함께 읽자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상 외로 호응이 높았다. 새로운 지적 흐름을 갈망하는 대중적 정서도 잠재해 있었고, 그동안 팟캐스트로 이미 교양과학에 흥미를 느낀 코어 그룹이 있어 불이 붙었다. 처음엔 기껏해야 수십 명이나 될까 했던 아주 작은 소규모의 비공개 그룹을 예상했는데 비공개를 유지하고도 2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 4000명이 가입하는 비교적 큰 모임이 되었다.

<과학책 읽는 보통사람들>은 온라인 모임이라 독특하게 운영된다.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이와 관련된 주도서와 보조도서를 복수로 지정해 자신의 관심과 수준에 맞게 골라 읽기를 권장한다. 읽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책 내용의 발췌나 독후감 등을 그룹 게시판에 올리며 이외에도 다양한 교양 과학 관련 신문기사나 저널의 내용, 행사나 강의의 스케줄 등도 공유한다. 게시판에는 어떤 주제라도 그것이 교양 과학에 관련한 것이라면 허용되며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가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곳곳에 숨어있던 고수들이 나타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문제인식과 사고의 지평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도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와도 열린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2010년 이후 대략 5년간 교양 과학이라는 세계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으면서 내 삶은 많이 변했다. 이전엔 나 자신과 내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안위만을 고민하던 소시민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지금은 교양과학을 매개로 한 배움과 나눔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게 내 삶의 좌표가 되어버린 까닭은 내가 느끼는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나는 미국에 20년 가까이 살면서 미국인들의 실용적, 실증적, 귀납적 태도와 사고 방식에 조금 물들었다고 할 수 있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의사결정에는 항상 합당한 근거를 내세우는 습관이 그들 몸에 배어있다는 것도 체험했다. 또 활발한 토론을 통해 아래로부터 자신들의 의견과 의사를 조직해서 모임을 운영하고 정치적 힘을 결집해 이슈를 해결해나가는 수평적 시민 민주주의의 세례도 받았다. 나는 이런 게 미국식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생각하며 민주주의는 정치적 이념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사람들의 몸에 밴 습관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곧바로 과학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고 믿는다. (물론 미국 사회의 절반은 이와 정반대이기도 하다.) 나는 한국이 비록 몇 십 년 뒤졌지만 미국과 다를 게 없으며 다만 시차가 조금 있어 그걸 좁혀가면서 이 방향으로 간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믿음이 깨어진 상태다.

한국 사회는 불과 수십 년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구와 같은 충분한 연습기간을 갖지 못한 채, 그들이 만들어놓은 결과만을 공식처럼 암기해 진도를 따라 잡기에만 골몰했다. 이제 경제 성장이 멈춰버리자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퇴보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정치적 각성으로 가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기이하게도 한국에서는 곳곳에서 퇴행이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여기서 논증할 여유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내 생각을 말하자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콘텐츠로서의 과학과 사회운영의 핵심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모두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고속성장 과정에서 과학은 기술의 도구로만 간주되었고 민주주의는 사회와 조직의 운영원리가 아닌 제도와 이념뿐인 껍데기로 전락했다. 이제 (경제)성장이라는 믿음과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제시만으로도 이상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특히 지난 세기 일부 엘리트에 의해 수입되었던 서구의 특별한 사상이나 사조, 정치이념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객관적 근거를 놓고 따지는 과학적 태도, 각자의 힘을 자발적으로 조직해나가는 능력을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하지 않는 한 사회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그걸 풀어내는 습관이 요구되는 것이다.

과학 지식 자체를 기계적으로 흡수하여 암기하려는 노력이

더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때로 해롭기까지 하다. 시간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끊임없이 자기수정하는 과학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심지어는 인문학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과학만능주의’도 매우 위험하다. 과학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학연구는 동기화된 추론과 같은 인지적 편향이나, 지명도의 추구 혹은 연구 기금을 목적에 둔 데이터 조작가능성에도 어느 정도 열려있게 마련이다. 동료평가(peer review) 역시 100%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 태도로서의 과학, 세계인식 방법론으로서의 과학과 민주적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을 몸에 익혀야 한다.

50년 만에 눈을 떠서 그런가? 과학 세계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가속하고 있다. 물론 100년 후의 눈에서 현재를 돌아보면 지금의 과학은 장님 문고리 잡기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사 전체를 돌아보면 현 시기만큼 빠른 속도로 과학이 발전한 적은 없었다. 분자생물학, 뇌과학, 진화과학, 이론물리학 등 다양한 과학의 분야들이 마치 가속 팽창하는 우주처럼 과학 지식의 변경을 가속적으로 넓혀나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인문 사회 영역들마저 철저히 흡수 재편하고 있다. 지금처럼 과학 공부하기 좋은 때가 있었을까? 많은 수의 교양과학책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강의도 거의 무료로 제공되며, 그런 고급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궁금한 점은 누구에게라도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하지만 한국의 교양과학 출판은 아직은 한겨울이다. 과학을 금단의 땅으로 여기는 문과계 열 사람들의 단단한 마음의 장벽과 좁은 분과적 지식의 틀에서 간혀 스스로 화석이 되어버린 과학전공자들의 굳어진 사고는 한국에서 교양 과학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를 주고 있다.

제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된 지 7년째의 중국으로 가보자. 전쟁도 끝나가고 정치제도도 바뀌었지만 중국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루쉰은 절망했고 7년간의 침묵이 이어진다. 신해혁명 후 7년간의 침묵 끝에 잡지 <신청년>에 루쉰이라는 이름의 필명으로 중국 최초의 근대소설 <광인일기>가 발표된다. 이 한편의 소설이 잠든 중국인을 흔들어 깨웠다. 이 <광인 일기>의 탄생에 대해 루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길지만 글 일부를 여기에 인용한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는 않았다. 그들은 『신청년(新靑年)』이라는 잡지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크게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는

모양이었다. 어쩌면 그들도 적막을 느끼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했다.

「가령 말이야, 창문은 하나도 없고 절대로 부숴지지도 않는 쇠로 된 방이 있다고 치세.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고 하세. 다들 곧 질식해 죽겠지. 하지만 혼수상태에서 곧바로 죽음의 상태로 이어질 테니까 절대로 죽기 전의 슬픔 따위는 느끼지 못할 걸세. 그런데 지금 자네가 큰 소리를 질러서 비교적 정신이 맑은 사람 몇몇을 깨운다면 말이야, 이 소수의 불행한 사람들은 만회할 수 없는 임종의 고통을 겪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고서도 자네는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겠나?」

「하지만 몇 사람만이라도 깨어난다면, 쇠로 된 방을 부수고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절대로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랬다. 물론 나는 절망을 확신했지만 희망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를 말할할 수도 없었다. 희망이란 미래에 속한 것이라, 과거에 내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글을 쓰기로 약속했고 이렇게 최초의 글 「광인 일기」가 탄생했다.”

—루쉰, <아Q정전> 『외집』 자서(自序)의 글 일부(1923년)